

부산지역

수출환경 실태 조사

2024. 6.



〈조사개요〉

1. 조사명

- 부산지역 수출환경 실태 조사

2. 조사목적

- 글로벌 수출입 환경 실태 파악 및 주요 정책과제 도출

3. 조사대상

- 부산지역 수출액 상위기업 210개사(응답 100개사)

4. 조사방법

- 조사표 기반 설문조사

5. 조사내용

- 수출 전망, 수출시장 다변화 실태
-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구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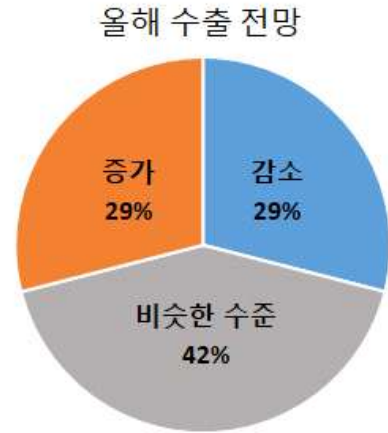
6. 조사기간

- 2024.5.20.~6.28.

1. 지역 주요 수출기업 올해 수출 전망

□ 올해 수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

○ 부산의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올해 수출전망을 조사한 결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42개사(42%)로 가장 많았으며, 증가와 감소를 전망한 기업은 각 29개사(29%)로 동일하게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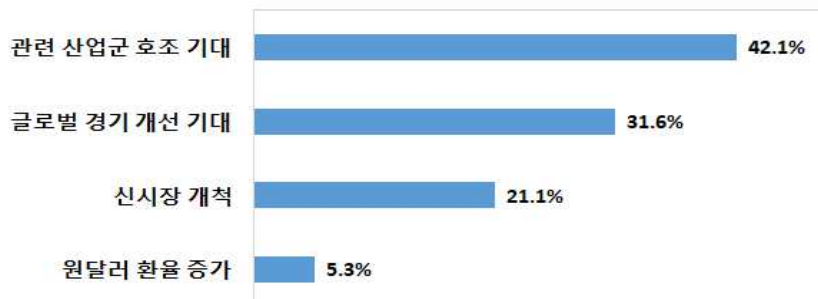
- 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에 있는 올해 국내 상황과는 대조적
- 약세를 기록했던 전년도 수출실적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

□ 수출 증가를 전망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관련 산업군 호조와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

○ 올해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관련 산업군 호조가 42.1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 31.6%, 신시장 개척 21.1%, 원달러 환율 증가 5.3% 등 순

- 주로 조선기자재, 자동차 부품 등 전방산업이 호조세를 보이는 업종에서 관련 산업군 업황 효과로 인한 수출 증가 전망
- EU, 캐나다 등이 선두로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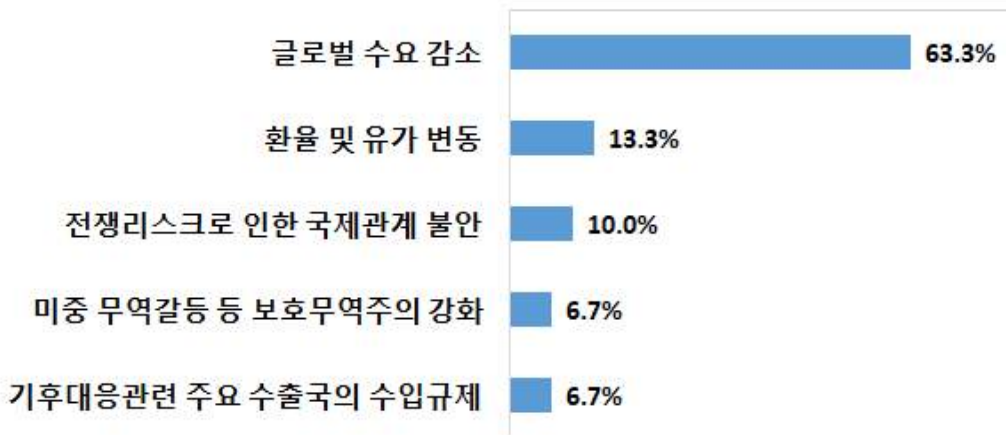
수출증가전망 이유



□ 수출감소를 전망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글로벌 수요 감소

- 올해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글로벌 수요 감소가 63.3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환율 및 유가 변동 13.3%, 전쟁리스크로 인한 국제관계 불안 10.0%, 보호무역주의 강화 6.7%, 기후대응관련 수입규제 6.7% 등 순
-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글로벌 교역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, 글로벌 경기회복에 영향을 미칠 미국의 긴축 정책 전환도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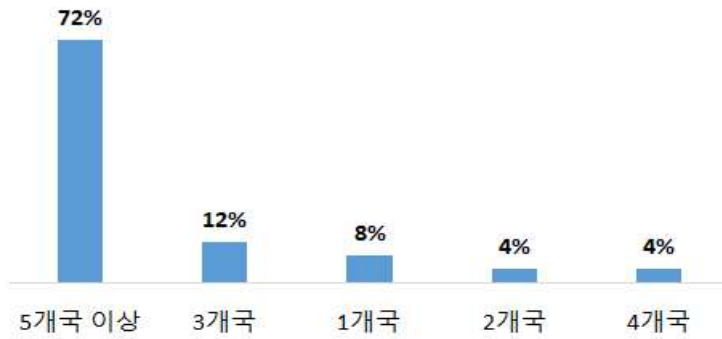
수출감소 전망 이유



2. 수출다변화 실태

- 5개국 이상 수출하는 기업이 72.0%로 대부분 수출다변화를 하고 있음
- 현재 수출중인 국가수를 조사한 결과, 5개국 이상 수출하는 기업이 72%(72개사)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3개국 12%(12개사), 1개국 8%(8개사), 2개국/4개국은 각 4%(각 4개사) 등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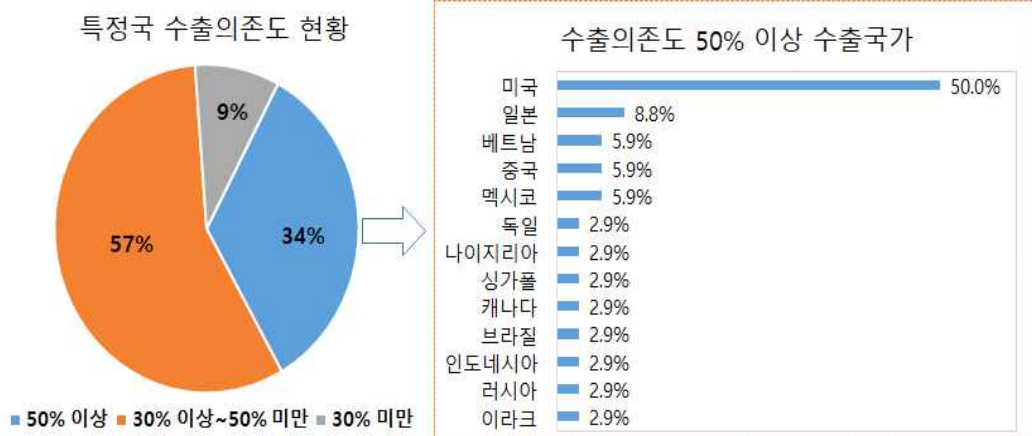
부산지역 주요 수출기업의 수출국 현황



□ 다만 특정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

수출의존도 30% 이상 수출기업이 91%, 그 중 대미의존도 가장 높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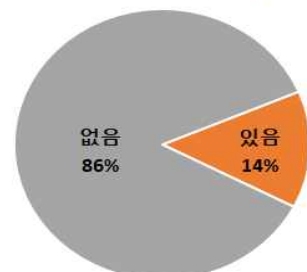
-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50% 이상인 수출기업은 34개사 (34%)로 나타났으며, 30% 이상~50% 미만 57개사(57%), 30% 미만 9개사(9%)
- 수출의존도가 50%가 넘는 수출국으로는 미국이 50.0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일본 8.8%, 베트남/중국/멕시코 각 5.9% 등 순



□ 최근 3년간 신규국가에 수출한 기업은 14%에 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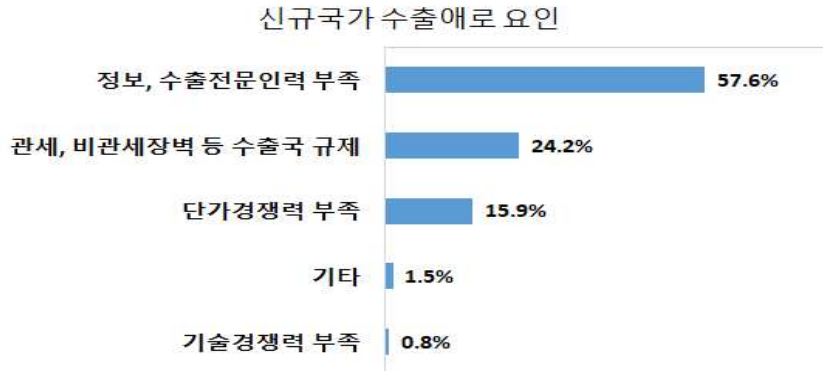
- 최근 3년간 기존 수출국 외 신규국가 수출여부를 조사한 결과,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86개사(86%)로 가장 많았으며 있다고 한 기업은 14개사(14%)에 불과

최근 3년간 신규국가 수출유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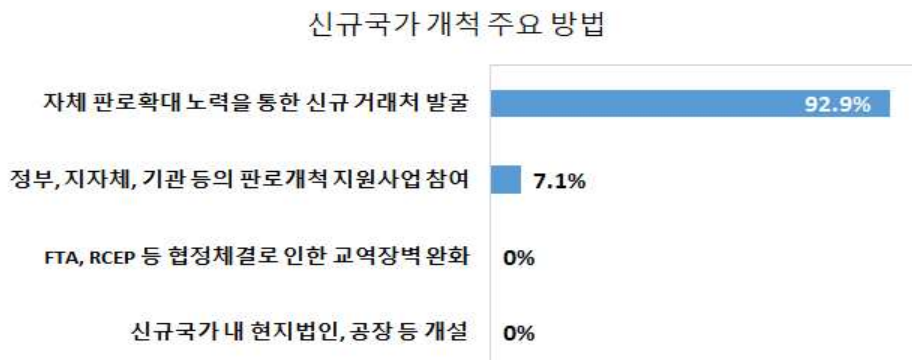
□ 신규시장 개척의 주요 애로는 정보, 수출전문인력 부족

- 최근 3년간 신규국가 수출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애로를 조사한 결과, 정보, 수출전문인력 부족 등이 57.6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관세/비관세장벽 등 수출국 규제 24.2%, 단가경쟁력 부족 15.9% 등 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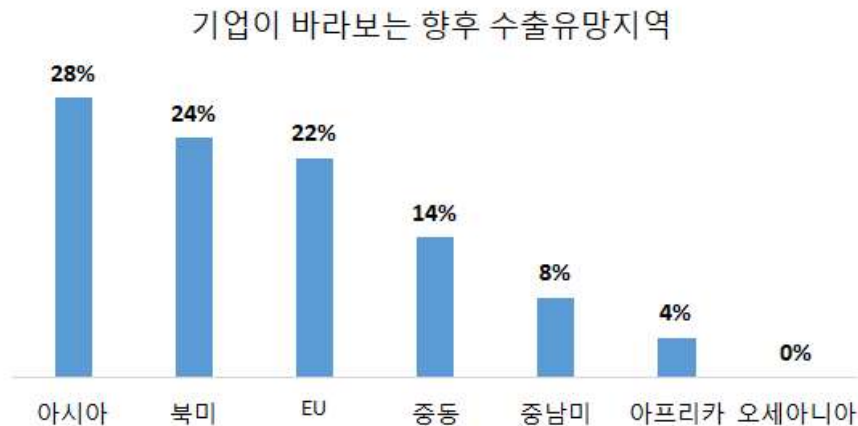
□ 신규시장 개척은 정부 지원이나 통상정책보다는 기업자체 판로확대 노력이 대부분

- 신규국가로 수출을 하게 된 방법으로는 자체 판로확대 노력으로 인한 신규거래처 발굴이 92.9%로 가장 많았으며, 정부, 지자체, 기관 등의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인한 경우는 7.1%에 불과. 이 외 FTA, RCEP과 같은 협정체결로 인한 신규국가 개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
- 신규국가 개척 비중이 낮고 그마저도 기업 자체 노력이 대부분인 점은 현행 판로개척 지원사업이나 통상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임



□ 향후 수출 유망지역은 현재 주력 수출지역과 큰 차이 없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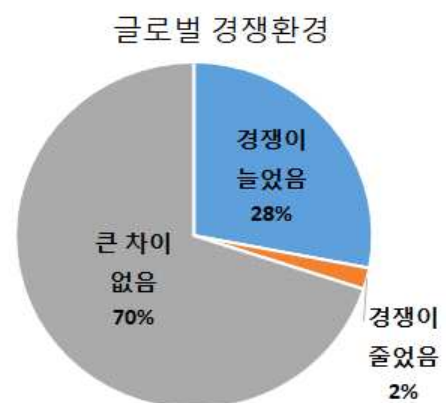
- 향후 수출유망지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, 아시아 28%, 북미 24%, EU 22% 등 현재 주력 수출지역이 여전히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었음. 그 외 중동 14%, 중남미 8%, 아프리카 4% 등 순
- 다만 중동의 경우 지역의 수출 비중(2023년 기준 5% 수준)은 낮은 편이지만 향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 이는 자체 투자여력이 풍부하고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



3.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한 인식

□ 어려운 대외여건 속 글로벌 경쟁은 다소 증가

- 지역 주요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조사한 결과 큰 차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70%(70개사)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경쟁이 늘었음 28%(28개사), 경쟁이 줄었음 2%(2개사) 등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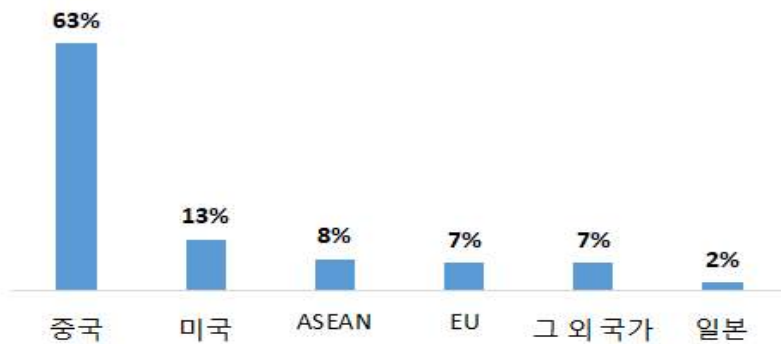


- 미중 대립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보호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각종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대외 환경 악화

□ 주요 수출경쟁국은 중국

- 주요 수출경쟁국으로는 중국이 63%(63개사)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미국 13%(13개사), ASEAN 8%(8개사), EU 7%(7개사), 그 외 국가 7%(7개사), 일본 2%(2개사) 등 순
-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자급율을 확대하고 수출 중심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수출 품목과 경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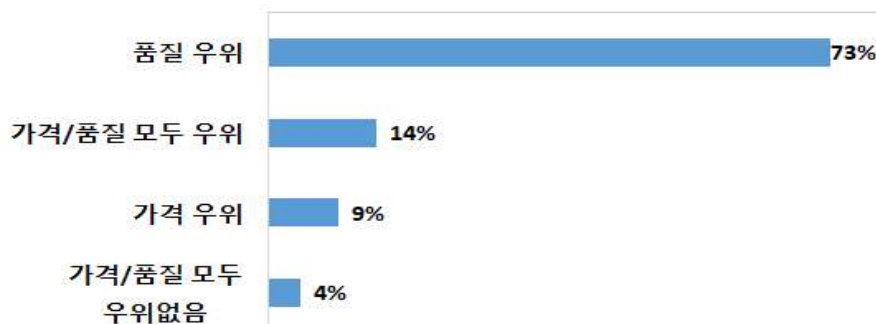
부산지역 주요 수출기업의 수출경쟁국



□ 응답업체의 87%가 해외 수출 경쟁업체 대비 품질 우위를 확보한 반면, 77%는 가격 경쟁력 뒤쳐져

- 해외 수출 경쟁업체 대비 지역 수출기업의 경쟁우위부문을 확인한 결과, 품질 우위의 기업이 73%(73개사)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가격/품질 모두 우위 14%(14개사), 가격 우위 9%(9개사)이며, 가격/품질 모두 열위에 있는 경우는 4%(4개사)에 불과
- 품질 경쟁력 대비 가격 경쟁력은 매우 부족한 편

해외 경쟁업체 대비 지역기업 경쟁우위 부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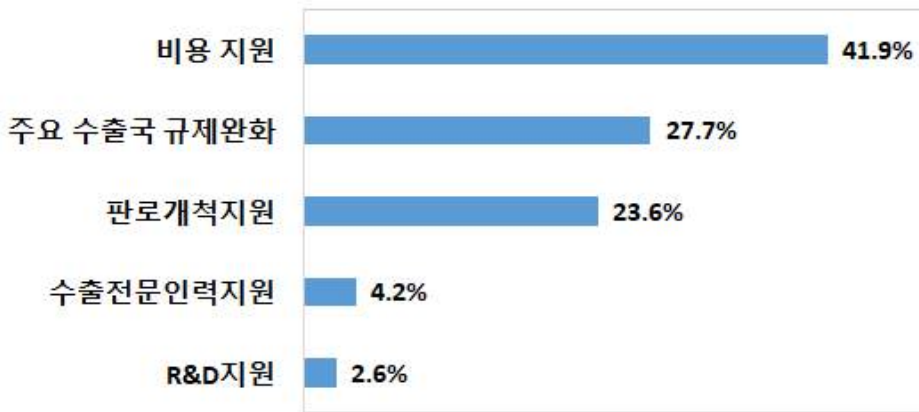
4.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지원책

□ 단기적으로는 비용지원,

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수출국 규제완화, 판로개척 지원 요구

-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지원책으로 비용 지원이 41.9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주요 수출국 규제완화 27.7%, 판로개척 지원 23.6%, R&D지원 2.6% 등 순
 -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가 상승, 운임급등,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열악한 대외 여건 속에서 가격경쟁력이 부족한 지역 수출업체의 경우 물류비, 무역보험료 등 비용 지원이 절실한 상황
 -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인한 각종 규제에 대한 해소와 신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도 중장기적으로 필요

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한 필요 지원책



□ 비용지원에는 물류비 지원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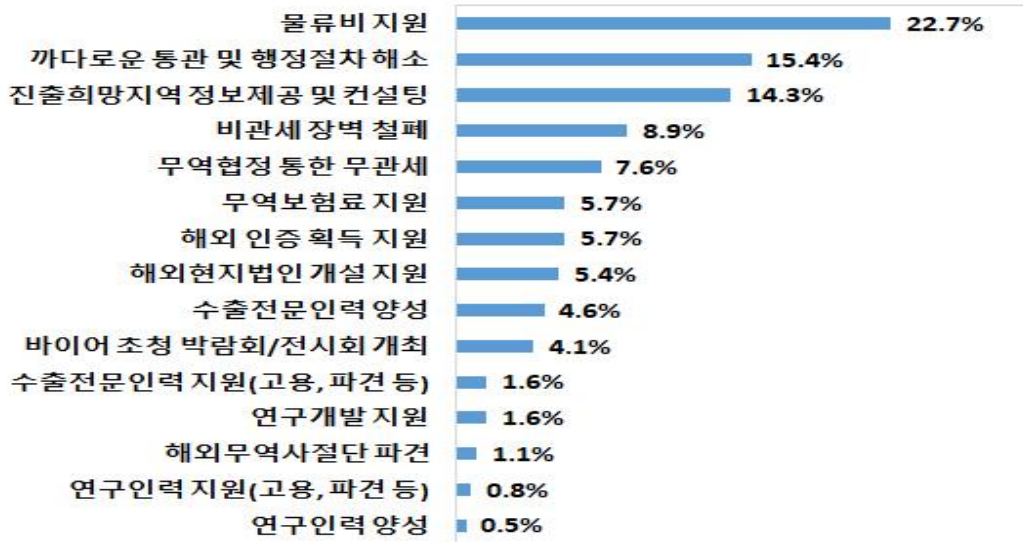
수출국 규제완화에는 까다로운 통관 및 절차 해소,

판로개척 지원에는 진출희망지역 정보제공이 가장 많이 요구됨

-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지원책으로는 물류비 지원이 22.7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까다로운 통관 및 행정 절차 해소 15.4%, 진출희망지역 정보제공 및 컨설팅 14.3%, 비관세장벽 철폐 8.9%, 무역협정 통한 무관세 7.6% 등 순

- 이는 홍해 사태, 미-EU의 관세대비 중국 밀어내기 수출 증가 등의 사유로 최근 해상운임이 급등하면서 물류비가 기업 비용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

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지원책



5. 시사점

- 수출의존도 분산에 무게를 둔 수출 다변화 지원 정책 필요
 - 개별기업 차원의 수출국 다변화 노력은 하고 있으나 특정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. 특정국 리스크 발생 시 지역 수출 타격 불가피하므로 수출 의존도 분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수출 다변화 지원 방안 마련 필요
- 지역 수출업체 품질 우수한 반면 가격 경쟁력 취약. 비용지원을 통해 이를 극복할 필요
 - 지역 수출업체는 해외 수출경쟁업체와 비교해 품질에 우위에 있는 반면 가격경쟁력은 부족한 상황. 또한 주요 수출경쟁국인 중국과의 수출품목에 대한 경합이 심화되고 있어 중국의 기술수준이 향상될수록 가격경쟁으로 인한 지역 수출업체 부정적 영향 우려

- 특히 단기적으로는 기업비용 증가의 주요 이슈인 해상 운임급등에 대한 기존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가격 경쟁력 상실 해소 필요

□ 판로 개척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필요하며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

- 신시장 개척의 주요 애로사항이 정보부족이며, 판로개척에 대한 주요 정책 요구사항도 진출희망지역의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

- 또한 신규시장 개척 대부분 기업 자체 판로확대 노력으로 이뤄지고 있어 현행 판로개척 지원사업이나 통상정책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